

보건진료원들의 학습경험과 직무수행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지, vol. 9, No. 3, pp. 75~82, 1983. 12.

이 선 자

본 연구는 1981년도 직무교육을 받고 근무중인 보건진료원 257명을 대상으로 1982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기간동안을 기준으로 1개월간의 업무수행 실적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 및 직무수행시의 실습일 수에 대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여 우편으로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얻었다.

1. 조사대상 보건진료원들의 평균연령은 30.7세였으며 이들 중 47.9%가 미혼이었다.
2. 보건진료원들의 최종학력은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4년제 간호대학졸업자는 4.3% 분이었다.
3. 근무경험은 14.8%가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였고 42.0%는 임상과 보건분야의 경력을 모두 가진 경우였다.
4. 응답자의 20.2%만이 조산원자격 소유자였다.
5. 보건진료원이 1개월 기간동안 1인평균 취급한 환자수는 352명이었고 분만개조건수는 1.0건이었다.
6. 전체 업무중의 79.8%는 환자진료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7. 직무교육시 실습한 총건수는 평균 1인 323.9건이었으며, 분만개조는 9.2건, IUD 삽입은 7.1건, 예방접종은 55.8건이었고 진료업무에 대한 실습경험건수는 내과 60.3건, 외과 40.3건, 소아과 23.8건, 안과 9.6건, 이비인후과 9.9건, 피부과 13.3건으로 나타났다.
8.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응답은 1차 보건의료요원으로서의 자신감은 53.3%가 자신있다고 응답하였고, 진료업무에 대한 자신은 42.9%, 분만개조는 34.3%가 가족계획사업에서 보건교육은 94.5%가 자신있다고 하였으며 지역사회활동은 43.4%가 자신있다고 응답하였다.
9. 직무교육시의 학습(실습)경험이 많을수록 업무수행에서의 자신감의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보건진료원들의 업무는 진료업무에 편중되어 있어서 일차보건의료사업에서 제시하는 여덟가지 기본사업내용을 균등있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보수교육과 정책적 방향 전환으로 이들의 활동을 균등있는 사업수행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이며 직무교육시에 실습내용의 강화가 요망된다.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본 보건진료원 사업실태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관리학전공, 1983. 12, p, 1~22.

이 정 애

보건진료원의 보건사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982년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경북도내 보건진료원 파견지역 중 대구근교의 8개지역을 선정하여 이 지역내 총 3,866가구의 약 25%를 무작위로 뽑은 1,016가구의 4,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해 면담조사하였다.

면담일로부터 지난 한달 동안 보건진료원에 의해 한 번이라도 가정방문을 받은 가구는 연구대상가구의 9.6%였고, 지역별로 2.6%에서 31.7%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많았고 총 220회의 가정방문 가운데 왕진요청에 의한 경우는 17.3%, 환자진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방문한 것이 40.9%, 그리고 환자가 없는데 자진방문한 것이 41.8%였다.

한달 동안에 연구대상인구 가운데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사람은 23.9%였으며 지역별로 1.5%에서 57.4%로 큰 차이를 보였고 연령별로는 0~4세군이 54.8%로 가장 높은 이용율을 나타내었다.

보건진료소내의 활동은 환자진료가 80.1%를 차지하였고, 보건교육 모자보건 예방접종등의 예방 및 건강증진활동은 19.9%에 불과했다.

본조사에서 보건진료원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환자진료를 주로하고 보건교육, 모자보건, 가족계획 등의 건강증진사업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에 대한 평가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간호학전공, 1984. 12.

김 수 영